

## HEADLINE NEWS

###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지원센터 개설 (일본: 카나가와縣)

일본무역진흥기구와 카나가와(神奈川)縣은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 요코하마市에 있는 산업무역센터빌딩에 「카나가와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개설했다. 이는 해외기업이 센터 내에 있는 사무실을 약 2개월간 무료로 사용하면서 지역 시장조사 등을 통해 일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이 센터에 있는 사무실 이용을 원하는 해외기업은 전화기와 인터넷회선을 구비한 사무실(11㎡)을 전화요금만 부담하면 2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더욱이 2개월 연장도 가능하다. 그리고 일본무역진흥기구의 직원 7명이 일본에 대한 투자자문도 실시하고 있으며, 등기 및 각종 인허가에 대해서는 현청(縣廳) 공무원이 직접 도와주고 있다. 최근에는 영국 목재가공판매회사가 입주하였다. 東京, 오사카 등 4곳에 지원센터가 있지만, 지자체와 공동으로 개설한 것은 첫 사례이다.

(mytown.asahi.com/tokyo/news02.asp?kiji=3010)

## HIGHLIGHTS

### 도시관리

- ① 난개발 제어 위해 개발권양양제도 추진 (뉴저지州: 트렌턴市)
- ② 공공시설 설치의 적정규모는 건물의 연면적 기준보다는 서비스 수준에 대한 산정이 더 중요 (메릴랜드州: 프린스 조지 카운티)

### 도시환경

- ③ 깨끗한 공기 유지 위해 대기청정법 갈수록 강화 (미국 전역)
- ④ 자동차 소음공해 증가에 따라 '소음문제 해결 시민단체 구성·활동 전개 (로스앤젤레스)

### 도시교통

- ⑤ 버스정류장 시설물 개선 프로젝트 「i-STOP」 추진 (밴쿠버)
- ⑥ 도로공사로 인한 운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Smart Work-Zone」 시스템 추진 (네브라스카州: 오마하市)
- ⑦ 자동차 소유의 새로운 대안 '자동차 웨어링 확대(미국 전역)

### 사회복지·문화

- ⑧ 청소년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기업과의 독창적인 파트너십 개발 (뉴올리언스)
- ⑨ 지역사회를 위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보조금 지원 (피닉스)
- ⑩ 청소년을 위한 근로체험 프로그램 참가희망자 모집 (피닉스)

### 행재정

- ⑪ 공공시설 건설·유지관리비용 감축을 위한 행동계획 실시 (동경)
- ⑫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상점가 산학공(産學公)프로젝트」추진 (동경)
- ⑬ 국제 테러에 대비한 「동경도 NBC재해 대처 매뉴얼」작성 (동경)

### ① 난개발 제어 위해 개발권이양제도 추진 (뉴저지주: 트렌턴市)

미국 뉴저지주는 최근 개발권이양제(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를 주전역에 허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그동안 사용해온 용도지역지구제 시스템이 난개발 제어와 농지보전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새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권이양제도는 토지를 보존지역(sending areas)과 개발유도 지역(receiving areas)으로 구분하여 정부가 계획적으로 도시개발을 유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에 따르면, 보존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이 개발권을 판 경우, 토지는 그대로 소유할 수 있지만 다른 용도로 개발은 금지된다. 개발권을 산 개발업자들은 이미 지정되어 있는 개발유도지역에서 허용된 범위만큼 개발할 수 있다.

([www.nytimes.com/2004/04/21/nyregion/21sprawl.html](http://www.nytimes.com/2004/04/21/nyregion/21sprawl.html))

### ② 공공시설 설치의 적정규모는 건물의 연면적 기준보다는 서비스 수준에 대한 산정이 더 중요 (메릴랜드주: 프린스 조지 카운티)

미국 메릴랜드주 프린스 조지 카운티는 1989년부터 토지개발시 적정규모의 공공시설(APF; Adequate Public Facilities)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최근 카운티내의 도시계획가와 정책가들이 이 정책의 문제점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적정규모의 공공시설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지금까지는 공공시설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산정 없이 단순히 건물 면적을 산출 기준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공공시설의 서비스 수준은 카운티가 의도했던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카운티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 수준을 고려할 수 있는 APF 설치정책이나 개발부담금과 같은 다른 형태의 성장관리정책들을 검토하고 있다.

([www.planetizen.com/news/item.php?id=12777](http://www.planetizen.com/news/item.php?id=12777))

### ③ 깨끗한 공기 유지 위해 대기청정법 갈수록 강화 (미국 전역)

최근 미국 환경청은 깨끗한 공기 유지를 위해 더욱 엄격한 대기청정법을 발표했다. 새로 발표된 대기수준에 따르면, 미국 내 120개 대도시권 중 110개가 수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청에서 규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지역들은 州정부의 주도하에 2007년까지 대기오염 저감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2010년까지 환경청에서 정한 수준을 달성해야 한다.

미국의 대기청정법은 1963년도에 제정된 후 여러 차례 수정되어 왔고, 1990년에 대폭 수정되었다. 정부는 대도시권 지역들이 환경청에서 정한 대기수준을 초과할 경우 대기오염 가능성이 있는 산업시설의 추가 확장을 금지시키고, 교통시설 투자나 확장을 위한 연방정부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정지시켜 왔다.

([www.usnews.com/usnews/issue/040419/usnews/19raleigh\\_2.htm](http://www.usnews.com/usnews/issue/040419/usnews/19raleigh_2.htm))

### ④ 자동차 소음공해 증가에 따라 ‘소음문제 해결 시민단체’ 구성·활동 전개 (로스앤젤레스)

최근 미국 ‘LA Times’는 자동차로 인한 소음공해를 특집으로 다루었다. 현재 자동차로 인한 소음공해는 미국 전역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저감시킬 수 있는 규제와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소음공해는 혈압상승, 피로, 스트레스 등 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특히 학교주변의 교통소음은 학생들의 수업 집중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뮤니티의 교통소음이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엔진소음과 타이어소음이 높은 SUV와 픽업트럭 차종이 급속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LA Times’는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대표적인 비영리시민단체로 버몬트州의 ‘Noise Pollution Clearinghouse([www.nonoise.org](http://www.nonoise.org))’와 뉴올리언스市の ‘Noise Free America([www.noisefree.org](http://www.noisefree.org))’를 소개했다. 소음공해와 관련된 각종 자료들은 웹사이트에서 이용가능하다.

([www.latimes.com/news/nationworld/nation/la-na-noise22apr22,1,4692424.story?coll=la-headlines-nation](http://www.latimes.com/news/nationworld/nation/la-na-noise22apr22,1,4692424.story?coll=la-headlines-nation))

### 5] 버스정류장 시설물 개선 프로젝트 「i-STOP」 추진 (밴쿠버)

캐나다 밴쿠버 대도시권 지역의 대중교통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 'TransLink'는 최근 대중교통 촉진책의 일환으로 버스정류장 시설물 개선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i-STOP」이라는 새로운 버스정류장은 환경 및 승객친화적인 것이 특징으로, 정류장 내부조명을 위한 절전형의 LED(Light Emitting Diode)와 승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조명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버스시간표 등의 안내판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고, 버스정류장 안내판 색상도 다른 안내판과 쉽게 구별되도록 시인성을 높일 예정이다. 'TransLink'는 우선 시범적으로 17개 버스정류장에 「i-STOP」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며, 내년 1월까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지역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www.translink.bc.ca/Whats\\_New/News\\_Releases/news04290401.asp](http://www.translink.bc.ca/Whats_New/News_Releases/news04290401.asp))

### 6] 도로공사로 인한 운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Smart Work-Zone」 시스템 추진 (네브라스카주: 오마하市)

미국 네브라스카주의 오마하市는 도로공사구간에서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Smart Work-Zone」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도로공사구간의 안전 도모 및 운전자가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지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일련의 차량속도 측정장치와 가변정보판으로 구성되어, 운전자에게 공사구간 주변에서의 교통흐름상황 및 적정 주행속도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이동식 카메라를 공사구간 주변에 설치하여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교통상황 관련 영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당국은 이 시스템이 공사구간에서의 교통사고 감소 및 시민들의 통행계획 수립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ww.dor.state.ne.us/news/news%20releases/current-month/smartworkzones-2004-4-23-04.pdf](http://www.dor.state.ne.us/news/news%20releases/current-month/smartworkzones-2004-4-23-04.pdf))

# 도시교통/사회복지·문화

## ■ 세계도시동향 ■

### 7] 자동차 소유의 새로운 대안 ‘자동차 셰어링’ 확대 (미국 전역)

최근 미국에서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보다 ‘Sharing’하는 방법이 새로운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자동차 셰어링’은 멤버십으로 운영되며 이용자는 자동차 구입비용, 보험료, 수리비를 전혀 내지 않는다. 다만 자신이 자동차를 사용한 시간과 운행 거리에 따라 비용이 청구된다. ‘자동차 셰어링’은 자동차 소유와 비교할 때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자동차를 자신의 스케줄에 맞추어 이용할 수 있다. 현대적인 의미의 ‘자동차 셰어링’은 1987년 독일에서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www.cars.com/news/stories/carsharing\\_overview.jhtml](http://www.cars.com/news/stories/carsharing_overview.jhtml))

### 8] 청소년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기업과의 독창적인 파트너십 개발 (뉴올리언스)

미국 뉴올리언스市는 컴퓨터업체인 델(Dell)社와의 혁신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평소 컴퓨터를 이용할 수 없었던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다. Dell社가 시행중인 「TechKnow」 프로그램은 중학생들에게 방과후 40시간 동안 컴퓨터 기본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컴퓨터 분해·조립, 소프트웨어 설치,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 진단 및 수리 방법, 교육용 소프트웨어와 워드프로세싱 등을 교육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학교수업에 결석하지 않고, 좋은 시민의식을 실천하며, 학교성적을 유지·향상시켜야 하는 프로그램의 요구사항들을 충족시켜야만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모두 마친 학생에게는 컴퓨터와 인터넷 1년 무료접속권을 수여한다.

이 프로그램에 기여하기를 원하는 단체나 개인은 市長 정보화실에 문의하거나 「TechKnow」 프로그램([www.dell.com/k12/techknow](http://www.dell.com/k12/techknow))을 참고하면 된다. Dell社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175대의 컴퓨터를 기증했다.

([www.new-orleans.la.us/home/mayorsOffice/press.php?page=Articles/040404DigitalDivide.html](http://www.new-orleans.la.us/home/mayorsOffice/press.php?page=Articles/040404DigitalDivide.html))

### 9 지역사회를 위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보조금 지원 (피닉스)

미국 피닉스市 청소년·교육위원회는 1999년부터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사업을 분기마다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은 보통 750달러까지 지원되는데,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하는 중·고등학생만이 신청 가능하다. 이 봉사활동 계획에는 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영리단체, 학교 또는 지역사회단체, 성인보호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보조금 신청자는 예산을 포함한 봉사활동 전반에 대한 개요와 함께 사업이 어떻게 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이번 분기에 선정된 봉사활동사업은 노동절에 환자들을 위해 꽃을 사서 배달하기, 공원에 꽃과 나무를 심고 청소와 페인트칠하기, 어린이야구·소프트볼 경기장을 정리하고 휴지통 설치하기, 공원의 침식된 곳을 복구하고 나무심기 등이다.

([phoenix.gov/NEWSREL/service.html](http://phoenix.gov/NEWSREL/service.html))

### 10 청소년을 위한 근로체험 프로그램 참가희망자 모집 (피닉스)

미국 피닉스市는 '하계 청소년 근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청소년을 최근 모집했다. 市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1,030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줄 계획으로, 참가자는 약 200시간 일을 하며 시간당 임금은 5.50달러이다.

이 근로체험 프로그램은 市에 거주하는 14세~18세까지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가신청서는 홈페이지([phoenix.gov/YOUTH/sumwork.html](http://phoenix.gov/YOUTH/sumwork.html))와 각 학교, 시청 담당과(공원여과과, 시민복지과), 커뮤니티센터 등에서 받을 수 있으며, 시민복지과에서 접수한다.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될 청소년은 신청자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선발되며 면접과정을 거치게 된다.

([phoenix.gov/NEWSREL/sumjobs.html](http://phoenix.gov/NEWSREL/sumjobs.html))

### ④ 공공시설 건설·유지관리비용 감축을 위한 행동계획 실시 (동경)

일본 東京都는 그동안 건설비용 감축을 위해 1차(1997년~1999년도 목표 7%), 2차(2000년~2003년 목표 5%)에 걸쳐 행동계획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리고 2003년 10월에는 「東京都 공공시설 등 비용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새로운 시설의 유지관리도 대상에 포함시켜 관계 21국에서 비용 감축 방안을 위한 검토를 실시해왔다.

이번 계획기간인 2004년~2006년에는 건설비용과 유지관리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10%의 비용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비용에 관련된 5개와 유지관리비용에 관련된 6개의 비용 감축 대처항목에 대하여 각 담당부서는 최근 실시계획을 작성했다.

([www.metro.tokyo.jp/INET/KEIKAKU/2004/03/70e3v100.htm](http://www.metro.tokyo.jp/INET/KEIKAKU/2004/03/70e3v100.htm))

### ④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상점가 산학공(産學公) 프로젝트」 추진 (동경)

일본 東京都 에도가와(江戸川)區는 치바상과대학(千葉商科大學)과 협력하여 區内の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상점가 산학공(産學公) 프로젝트」를 6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빈 점포의 유효활용과 상점의 참신한 외관 등에 관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서이다.

이 프로젝트는 최근 고객이 줄어들어 고민하는 상점가들이 상점가 활성화에 관한 젊은이들의 의견을 궁금해하여 區가 근처에 위치한 치바상과대학과 상의한 결과, 대학에서도 실제 상점운영에 관련된 사항이 학생들에게 귀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여 시작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점가에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점포 용도, 상품의 홍보, 이벤트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며, 실제 학생이 빈 점포를 운영할 경우 區가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www.yomiuri.co.jp/e-japna/tokyo23/news004.htm](http://www.yomiuri.co.jp/e-japna/tokyo23/news004.htm))

### 국제 테러에 대비한 「동경도 NBC재해 대처 매뉴얼」 작성 (동경)

일본 東京都는 최근 세계적으로 테러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대도시에서의 핵물질, 생물제, 화학제에 의한 ‘NBC재해’ 대처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위해 都는 ‘NBC재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都의 관계부서, 관계기관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요령 등을 정한 「東京都 NBC재해 대처 매뉴얼」을 작성하였다.

매뉴얼의 기본방침은 都 내에서 ‘NBC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의 경감 또는 사회불안의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또는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대처하며, ‘NBC재해’의 발생에 대비하여 평상시부터 사전대책을 충실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신속·확실한 정보연결체계의 확립, 둘째, 지시·명령의 신속한 전달과 각 국과의 유기적인 연계, 셋째, 각 재해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4/03/20e3v300.htm](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4/03/20e3v300.htm))